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5/6(주일) 설교 내용

요나 1:1-10

1. 풍랑을 만난 배에서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야기해 보고, 두가지 교훈 중에 내가 배워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두가지 교훈은,

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

요나가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요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물으며 문제를 확인하는 선원들의 모습

② 정직한 태도

제비를 뽑은 요나가 ‘이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

내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에 대해 나누어 주시고,
두가지 교훈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태도나 자세는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신다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수천년전의 요나에게 하신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쿨쿨 잠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는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과연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시 QT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새벽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성수나 헌금생활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목자님들께서 먼저 나눔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